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내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현대불교신문
구독 후원 상담
02-2004-8212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1월 21일)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동국대 차기 총장 후보 선출 '본격화'

총추위원 27명 위촉… 위원장 혜일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과 선출 일정이 완료되면서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한 달여의 선거 여정이 시작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12월 6일 교내 로터스홀에서 총장후보자추천위원(이하 총추위원) 27명을 위촉했다.

규정에 따르면 총추위는 종단, 사회인사, 교원, 직원, 동문, 대학학부, 대학원에서 추천된 대표자로 구성된다.

이날 위촉된 총추위원은 △혜일 · 오심 · 성화 · 서봉 스님(조계종 대표) △김영일 · 임명배 · 김봉석(사회인사 대표) △허남결 · 노헌균 · 송민규 · 오미영 · 이재철 · 임성묵 · 장원희 · 안종석 · 이승철 · 양윤호 · 이무열 · 윤상호

총추위 첫 회의… 일정 확정해

12월 13~14일 총장 후보 접수

26일 소견발표, 27일 후보 선정

(교원 대표) △박세훈 · 김종윤 · 장기복 · 김계철(직원 대표)△박대신 · 문선배(동문 대표) △안현민(학부 대표) △김정도(대학원 대표) 등 총 27명이다. 총추위원장에는 혜일 스님이 추대됐다.

추대 직후 혜일 스님은 "조계종립 동국대는 불교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를 이끌 총장을 선출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영광이다"며 "학교 발전을 이끌 능력있는 인물을 제20대 총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총추위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총추위는 1차 회의를 통해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총장 초빙 공고가 이뤄지며,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후보 지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12월 15일 열리는 총추위 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원자 자격심사가 이뤄지며, 19일 총추위 2차 전체회의에서는 지원자 자격심사 의결과 이사회에 올릴 최종 후보자수를 확정한다.

12월 26일 오전 10시 로터스홀에서 열리는 총추위 3차 전체회의에서는 후보자 소견발표(PPT)와 총추위원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이 과정은 유튜브 등 온라인 중계를 통해 공개된다. 최종후보자 선정 및 이사회 추천은 12월 27일 오전 10시 총추위 4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차기 총장 후보자 누가 뛰나

차기 총장 후보자 추천 일정 전반이 확정되며 출마 후보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12월 7일 현재 거론되는 차기 총장 선거에 출마 후보군은 △김종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윤성이 현 총장 △임중연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김종욱 교수는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사업단 등을 이끌며 한국불교학의 세계화 대중화 불사에 매진해 종단 안팎으로 높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박명호 교수와 송일호 명예교수는 지난 총장 선거에 출마했었다. 건학이념 정립 공약으로 당시 박명호 교수는 불교대학 중심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송일호 명예교수는 불교한류문화원 설립 등 불교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 개발을 내세운 바 있다.

윤성이 현 총장은 건학위원회 원력에 발 맞춰 여러 사업들을 추진했으며,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9위 달성을 이끌었다. 임중연 교수는 버클리대학에서 공학박사를 받은 재원으로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찰행정학부, 법학과 등 초학제적인 연구진으로 구성된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 Googi 개발 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다.

최응렬 교수는 학사부터 박사까지 모두 동국대에서 받은 '동국인'으로 사회과학대학 · 행정대학원 부학원)장(2007~2011), 대외협력본부장(2012~2015) 등을 역임했다.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서울 종로 조계사에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소원의 탑이 우뚝 섰다. 조계사는 12월 8일 '2023년 소원의 탑 개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소원의 탑은 2023년 계묘년에 맞춰 '희망찬 새해로 토끼처럼 깡충깡충'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보름법회를 맞아 조계사를 찾은 신도들과 시민들은 슬로건이 적혀있는 소원지에 자신의 내년 소원을 적어 소원탑에 걸었다. 사진은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사진 왼쪽)이 선재어린이집 원아들의 소원지를 함께 걸어주고 있는 모습.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주요 불사 지원할 종책특보단 구성

진우 스님, 12월8일 임명식
종책특보단장엔 성행 스님
종책 · 복지 등 8개 분야
출 · 재가 보좌관 임명돼
산하기관 교역직 임명식도
민추본 본부장에 태효 스님


성행 스님(특보단장)


만당 스님(종책특보)


태원 스님(복지특보)


탄탄 스님(문화특보)


보관 스님(정무특보)


종원 스님(군종특보)


현무 스님(사회특보)


정관 스님(비구니특보)


태효 스님(민추본 본부장)


김상기(종책특보)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주요 종책과제와 불사를 지원할 종책특보단 구성이 완료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책특보단장과 8개 분야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이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책특보단장 성행 스님을 비롯해 종책특별보좌관 만당 · 복지특별보좌관 태원 · 문화특별보좌관 탄탄 · 정무특별보좌관 보관 · 군종특별보좌관 종원 · 사회특별보좌관 현무 · 비구니특별보좌관 정관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종책특보에는 김상기 씨가 임명됐다.

임명장 수여 직후 진우 스님은 "임명된 특보 스님들은 해당 분야에서 경륜과 지혜를 갖추신 분들"이라며 "제37대 총무원 집행부의 주요 종책 과제와 중요 불사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성행 스님은 "특보단이 37대 집행부와 함께 주요 불사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만당 스님은 "종단이 대내외적으로 어렵지만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특보단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원 스님은 "복지관 운영 경험을 최대한 살려 종단 복지 종책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으며, 탄탄 스님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관 스님은 "종회의원과 집행부 간의 정책적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종원 스님은 "군승 수급과 출가자 문제 등 현안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무 스님은 "37대 집행부는 한국불교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발자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정관 스님은 "전국비구니회가 종단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종단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에 대한 임명도 12월 8일 진행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진우 스님은 신임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태효 스님, 사무총장 덕유 스님과 불교신문사 신임 사장 삼조 스님, 주간 원돈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지안 스님,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정안 스님,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 범하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진우 스님은 "지금은 북한과의 경색된 국면을 해소하려면 불교가 물꼬를 터야 한다. 그만큼 민추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신임 본부장 스님께서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불교신문은 종단 기관지로서 전통문화 창달에 도움이 되는 불교언론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신성민 기자**



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2년 연속
9위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선 융합교육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동국대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육성합니다

2023학년도 정시모집
2022.12.30.(금) 10:00 ~ 2023.01.02.(월) 17:00